

STRATEGY 21

통권44호 Vol. 21, No.2, Winter 2018

## 인도-태평양(FOIP) 전략과 전력분산의 치명성에 관한 연구

김 태 성\*

---

I. 서론

II. 인도-태평양 지역과 해양안보

1.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념
2.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3. QUAD(미국-인도-일본-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III.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공통성

1.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등장배경 및 개념
2.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추진 현황
3.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추진 동인(動因)

IV.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 발전의 함의

1. 미국-인도, 베트남 해군간 협력 강화
2. 미국과 역내 국가 해군과의 통합 전투력 극대화
3. 함정 손상통제능력 향상 추진
4. 인도양 국가-태평양 국가간 경제협력 추진

V. 결 론

---

\* 해군소령(해사 60기), 국방대학원 안보정책학 석사, 現 U.S. Naval War College 재학 중.

## I. 서론

지난 5월 30일 제임스 매티스(James Norman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 71년 동안 사용되어 온 사령부의 명칭을 태평양사령부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였다.<sup>1)</sup>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sup>2)</sup> 전략은 2017년 10월 틸러슨(Tillerson) 前 국무장관이 처음 공식 언급하였다. 이후에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는데 기존 국가안보전략과 가장 다른 분야는 지역 전략 중 유럽이나 중동에 앞서 인도 및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부상을 환영하는 한편,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하는 ‘4자(quad)’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한 것은 2017년 11월 아세안 순방 당시 베트남에서 행한 연설에 포함되어 있었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018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재확인하였다.<sup>4)</sup>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 기존의

- 
- 1) “美, 태평양사령부 명칭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 『연합뉴스』 (2018. 5.31.)
  - 2) ‘인도-태평양’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1월 인도의 해군장교인 구프리트 쿠라나(Gurpreet Khurana) 박사가 쓴 논문에서 이 단어가 언급된 이후부터다. 쿠라나 박사는 “인도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확대로 인도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더 이상 배제될 수 없게 됐다”며 아시아 전략에서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안했다. “美 ‘인도·태평양 구상’ 공식화... 아직 갈 길은 멀다,” 『국방일보』 (2017.11.19).
  - 3) “More Prominence for India and the Indo-Pacific in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ecember 19, 2017.
  - 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항로(maritime routes)나 해양공간(maritime space)는 모두를 위한 경제 번영의 장인 만큼,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해양 및 국제법 집행 능력, 해양 질서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증진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이 타국의 군사와 보다 용이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미 안보 파트너국에 대한 최신 미 군사장비 관련 자금조달 및 판매 지원, 인도-태평양 지역군 인력에 대한 미국의 전문적인 군사 교육 개시 등을 할 것이다. 셋째, 법치주의, 시민사회 및 투명한 거버넌스 강화이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밝은 빛처럼 악성 영향을 없애듯이 미군은 투명성 고양, 전문적인 군사 교육, 역대 각종 군 관련 인력들간 일상적인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로, 민간 주도 경제 개발 지원이다. 역내 인프라를 포함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 및 재정 관련 기관들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다 적극적인 부유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섯째, 동북아에서의 미국 동맹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 및 일본과 동맹 현대화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21세기형 도전과제에 대응토록 변화 중이다. U.S. Department of Defense, “Remarks by Secretary Mattis at Plenary Session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확장되는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전략적 초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최근에 해양전략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해양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은 강력한 해양세력으로서 과거부터 항공모함과 이에 탑재된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세계에 군사력을 현시하고 원하는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략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수상전 심포지엄에서 미국 해군 해상전 담당자인 피터 판타(Peter Fanta) 소장이 “떠 있다면 싸운다(If it floats, it fights)”라고 말하면서 함정 전력의 화력강화와 분산배치를 강조하는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전략을 처음 제시하였다. 여기서 “치명성”이란 의미는 더 좋은 무기체계(Better weapon)를 의미하며 “분산”은 강화된 무기체계를 탑재한 더 많은 수의 함정들로 하여금 대양에서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적에게는 한 번에 대응할 수 없는 많은 표적·위협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sup>5)</sup> 또한 해당내용은 공식적으로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Proceedings(2015년 1월)에 포함되어 있으며<sup>6)</sup> 또한 미국 해상전력사령관 로우든(Tom Rowden) 중장이 발행한 2016년에 해상전력전략 보고서에도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문서 서두에서 그는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응답으로 수상전력 전략을 제출했으며 해당전략은 해양통제로의 귀환(Return to Sea Control)과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sup>7)</sup>

미국은 80년대 말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권 몰락 이후 ‘해양통제’ 개념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미국은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을 행사하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제해권에 도전할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문서에서도 강대국 간의 경쟁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

---

of the 2018 Shangri-La Dialogue,” <https://dod.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View/Article/1538599/remarks-by-secretary-mattis-at-plenary-session-of-the-2018-shangri-la-dialogue/>(검색일: 2018. 11.20).

5) “If it floats, it fights: Navy seeks distributed lethality,” *Breaking Defense*, January 14, 2015.

6)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 January, 2015.

7) COMMANDER NAVAL SURFACE FORCES, “Surface Force Strategy-Return to Sea Control,” [https://www.public.navy.mil/surfor/Documents/Surface\\_Forces\\_Strategy.pdf](https://www.public.navy.mil/surfor/Documents/Surface_Forces_Strategy.pdf) (검색일: 2018.11.20).

다. 그러나 2016년 한 해 동안 1,000톤 이상급 함정을 26척이나 건조했던 중국과 군사력 현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들의 부상과 최근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미국에게 해양통제는 달성해야 할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sup>8)</sup>

이 글은 위와 같이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2가지 전략의 공통성을 살펴보고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해당 전략은 미국의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연설 내용 및 국가안보전략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안보의 중요성, III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공통성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해당전략들의 발전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인도-태평양 지역과 해양안보

### 1.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념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과 그 인접 국가들인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미국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결국 아태지역이라는 전략공간에 인도양 그리고 동아프리카 국가 및 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도양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로이며 에너지 생명선인 3개의 중요한 해협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의 진입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Bab-el-Mandeb Strait), 세계 석유 생산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이어주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이 인도양에 위치해 있다.<sup>9)</sup>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자원이 수송되는 해상 항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동에서 아프리카 서해안과 인도 서쪽 인도양까지 포함하는 광역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과거 아시아-태평양

8) “미국 해군의 공세적 해양전략과 전투함대—마한으로의 회귀?,” 『KIMS PERISCOPE』 제85호 (2017. 6.11).

9) 이대우,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정책』 (2017.12), p.14.

이나 동아시아 개념과는 다른 중심축을 설정하게 된다. 해당개념에 비해 중심축이 보다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하여 사실상 중심축은 동남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선이 된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명칭 자체가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에서 유래했다는 점과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바닷길(Sea lane)로 이어져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이어지는 축은 육지가 아닌 바다로 연결되는 선이다. 특히 이 선상에 인도가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태평양에 치우친 국가들이다. 반면 인도는 상징적으로 인도양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서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잘 투사되지 못하는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군사력을 갖췄기 때문이다.<sup>10)</sup>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6개의 지역사령부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사령부보다 많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36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해당지역에는 세계에서 크기가 큰 10개의 항구 중에 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력 순위 10위 내 7개국이 위치하고 있고 5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리적 범위는 다음의 지도와 같다. 인도의 서부부터 미국의 서부까지 해당된다.<sup>11)</sup>

〈그림 1〉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책임구역



10) 이재현,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Issue Brief』 (2015.10), p.3.

11) U.S. Indo-Pacific Command 홈페이지, <http://www.pacom.mil/About-USINDOPACOM/USPA-COM-Area-of-Responsibility/>(검색일: 2018.11.20).

## 2.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중국 해군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해당지역 해양에서의 갈등 심화이다. 인도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경제 및 군사력의 발전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남중국해 등에서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에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야로 국제법에 의거 중국의 해당 해역 영유권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수입로 보호 차원에서 2008년 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인도양에 2척의 군함과 1척의 보급선을 파견했다. 이는 중국 해군이 아시아 해역을 벗어나 작전을 수행한 첫 번째 사례였다. 중국은 인도양에서 자국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항구를 얻기 위해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항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중국 남부(광저우)로부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연결하는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인도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노력은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해상 실크로드 건설로 구체화되고 있다.<sup>12)</sup>

두 번째는 해상교통로 보호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에는 해상교통량이 많은 해역(아라비아해, 벵갈만, 동·남중국해)을 통과해서 길목(Choke Point / 바브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으로 수렴된다. 그만큼 해상수송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해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2013년에 일본의 해양정책 연구기관(The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중동에서 일본<sup>13)</sup>으로 가는 초대형 석유운반선(30만톤 이상)이 국제분쟁으로 인해서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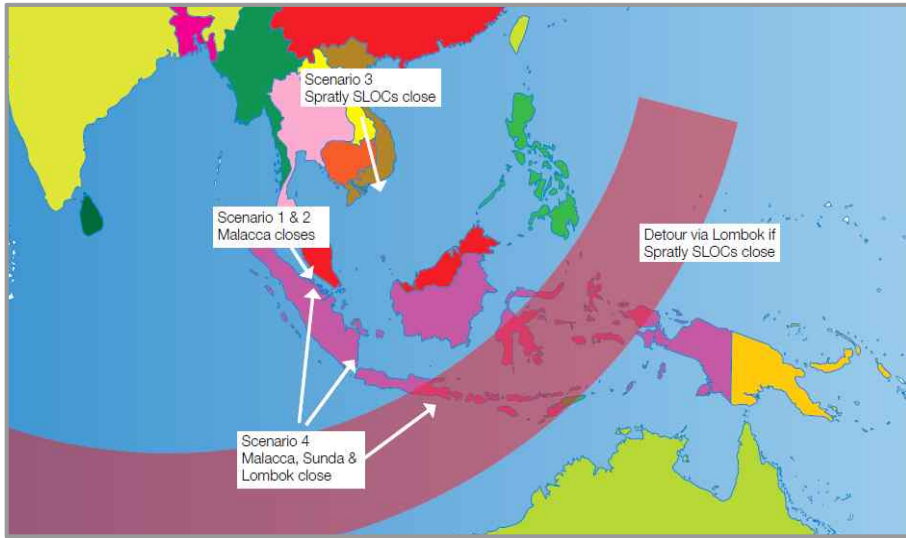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인근 국가들간에 국제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9단선 및 지역거부 전략으로 해당해역을 통과하려는 함정에 대해서 중국의 허가를 요구하면서 함정들의 이동을 통제하게 된다. 일본으로

12) 이대우(2017), p.14.

13) 일본 국익이 걸린 주요 해양교통로는 남중국해와 인접한 말라카해협을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일본 에너지 수입량의 88%를 포함해서 세계 무역량의 35% 이상(1년에 5조3천 억 달러)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Midford, Paul, "Japan's Approach to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Asian Survey*, Vol.55 (2015), p.525.

이동하려는 초대형 석유운반선은 해당해역의 분쟁으로 인해 이동의 통제를 받는다면 말라카 해협에서 롬복(Lombok)해협과 마카사르(Makassar)해협으로 우회해서 이동해야 하고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연간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그림 2〉 해상교통로상 주요 해협과 우회로



추가로 이러한 상황은 석유 가격의 증가를 유발하여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봉쇄전략을 시행하게 되고 중국 역시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를 통해서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14)</sup> 위와 같이 해당해역에서의 해상교통로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해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도-태평양에서 인도의 역할 확대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해당지역 내 해양안보 분야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인도는 중국의 해군력 성장에 따른 지역 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sup>15)</sup> 사실 인도는 냉전이 종료된 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배제되어 왔

14)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AND COOPERATION," *National Security College* (July 2016), pp.16-18.

15) Chacko, P, "The rise of the Indo-Pacific: understanding ideational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s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68, No.4 (2014), pp.433-452.

다. 비록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가입했지만 지역 안보에 있어서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인도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성장률이 8% 이상을 기록한 2003년의 경우 인도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대외정책으로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대외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로부터는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이들 국가들로부터도 구속성 원조(Tied Aid)는 받지 않고 비(非)구속성 원조만 받겠다고 발표했다. ODA에 대한 인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변화를 발표한 것이다. 이후 G7이외의 국가로부터 ODA를 받지 않겠다는 정책을 지속되었다. 2004년 4월에는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안보 영역을 기존의 해안선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페르시아만 걸프(Persian Gulf) 지역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이르는 인도양 전체로 확대하는 해양안보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인도의 대 미국 외교는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2015년에 미국과 인도는 “인도-태평양 공동전략비전(India-US Joint Strategic Vision for the Asia-Pacific and Indian Ocean)”을 발표했다. 이 공동 비전의 문구가 암시하는 것처럼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확장정책을 억제하고 인도양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해당지역 전략의 핵심안보 파트너로 인도를 강조하고 있다.<sup>16)</sup> 게다가 인도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신 동방정책(Act East Policy: 인도 동쪽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응해 ‘계절풍 계획(Project Mausam)’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Mausam은 ‘계절’을 뜻하는 힌디어이며, 이 계획은 서기 500~1000년 계절풍을 이용해 개발된 인도양 항로를 되살리는 것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동아프리카를, 동쪽으로 동남아시아를 잇는 안정적 항로를 확보하고자 한다.<sup>17)</sup> 이러한 노력들은 인도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균형자로서 해양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된다.

16) 김찬완, “모디정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4권 제2호(2018), pp.39-41.

17) 이대우(2017), p.16.



### 3. QUAD(미국-인도-일본-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상국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전략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미국은 최초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시아 회귀 정책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안보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연안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적용시켰다. 2010년 국무장관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는 해당지역의 해상교통로는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며 호주, 싱가포르, 인도와의 안보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이후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해군력 투사에 관한 개념 및 계획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sup>19)</sup>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호주와 일본과의 오래 유지해 온 해양협력 분야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일본이다. 일본은 지역 안보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9조의 재해석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구체화 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아베 정부는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국익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에 민주적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4개국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까지 해양이익 수호를 위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sup>20)</sup> 이 개념을 기반으로 일본은 기존의 안보파트너인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 이외에도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9월에 열린 일본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국방장관 회의(2+2) 창설, 미국을 포함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sup>21)</sup>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역할 확대와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인도와의 협력 관계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

18) Hillary Clint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28 October 2010," <https://vimeo.com/16438205>(검색일: 11.20).

19) Toshi Yoshihara, "The US Navy's Indo-Pacific challenge," *Journal of the Indian Ocean Region*, Vol.9, No.1 (2013), pp.90-103.

20)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7.

21) "일본-인도 정상회담...모디 총리, 日집단지위권지지," 『SBS NEWS』 (2014.9.1.)

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이다. 호주는 2013년 국방백서에 인도-태평양 개념을 명시하기 시작했다.<sup>22)</sup> 호주의 경우 해당전략이 두 개의 분리된 지역인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를 결합시킬 수 있고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국들과 더불어 인도와 함께 새로운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인도간에 해양안보 이익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미국의 인도양 및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Engagement) 보장의 측면에서 호주는 해당전략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3)</sup>

인도 역시 다양한 외교정책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로서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연관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잠재적인 해양갈등 요소들을 고려 시에도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의 해양협력 관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4)</sup>

이상과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해당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 Ⅲ. 분산된 치명성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통성

#### 1.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등장배경 및 개념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채택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sup>25)</sup> 미국은 과거부터 항공모함과 이에 탑재된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 세

22)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fence White Paper," p.7. [http://www.defence.gov.au/whitepaper/2013/docs/WP\\_2013\\_web.pdf](http://www.defence.gov.au/whitepaper/2013/docs/WP_2013_web.pdf)(검색일: 2018.9.3).

23) David Scott, "Australia's embrace of the 'Indo-Pacific': new term, new region, new strateg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13, No.4 (2013), pp.425-448.

24) C. Raja Mohan, *Samudra Manthan: Sino-Indian Rivalry in the Indo-Pacific*,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12)

계에 군사력을 현시하고 원하는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략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 수행 능력이 증대되면서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그 위협의 중심에 있다. 중국의 미사일에는 ‘공세적 자국 방어’와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물려 있다. 이 중 공세적 방어를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개념으로 ① 미국이 핵공격을 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역공해 방어하고 ② 미 재래식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아 방어하는 전략의 구조로 되어 있다.<sup>26)</sup> 특히 중국의 MRBM(DF-21D, DF-26 / 중국으로부터 600NM, 동·남중국해 및 일본, 필리핀을 포함)은 A2AD의 핵심 전력이다. 지금까지 DF-21D가 1,500~2,000km 사이인 제1도련선까지의 미국 군사력 접근을 막는 핵심 전력이었다면 DF-26은 이를 3,000km 이상으로 확대하는 미사일이다. MRBM의 핵심은 사거리 1,700km인 DF-21(CSS-5) 미사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DF-21A, DF-21C, DF-21D가 개발됐다. DF-21D(CSS-5 Mod 5)는 항공모함 요격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이다.<sup>27)</sup> 전술용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며 정밀 유도되는 DF-21D는 중국 A2AD 전략의 핵심으로 본토 해안 900NM 내로 진입하는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sup>28)</sup> 이에 더하여 2014년 초기부터 중국은 시사 및 난사군도에 부두시설, 항공기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해당 섬에 A2AD 전력들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시사 군도내의 우디섬(Woody Island)과 난사 군도내의 피어리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에는 UAV, 전투기 등이 이착함 할 수 있는 활주소가 건설됨으로써 최신예 전투기 J-11, 대공 미사일(HQ-9) 등이 2016년 2월에 배치되었다. 섬 내에 해당 전력들의 배치는 중국의 A2AD 능력 범위를 호주까지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미국의 항모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sup>29)</sup>

25) 물론 초국가 단체 및 테러단체들의 국지적 해양거부활동 역시 미국이 분산된 치명성 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나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COMMANDER NAVAL SURFACE FORCES(2016).

26) 안성규,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Issue Brief』 (2015.11), p.1.

27) 이외에도 중국은 연안에서 미국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 항공기 및 무인기를 운용하고 대함순항 미사일(ASCM)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2016), p.25.

28)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2015), p.16, 40, 43.

29) “RED ALERT: The Growing threat to U.S. Aircraft Carrier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bruary 22, 2016.

사실 미국 해군은 냉전 시대부터 지난 30여 년간 공격적인 수상전투를 위한 수상함의 훈련이나 탑재 무기체계에 관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된 내용이 아니었다.<sup>30)</sup> 하지만 위와 같은 중국의 해양거부 전략은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수상함을 운용하는 개념에서 공격적으로 해양을 통제<sup>31)</sup>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 해군은 2015년 1월 분산된 치명성 전략이 소개된 이후로 수상함에 의한 전투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미래 해양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전략을 선택하였다.<sup>32)</sup>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항공모함이 목표해역의 진입이 제한되므로 항공모함이 진입 前 3-4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수상전투단을 분산하여 해양 통제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이다.<sup>33)</sup> 전술적으로 보면 이는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탐지확률을 낮추게 하고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임무성격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상함 전력들을 유연하게 운용 가능하게 한다.<sup>34)</sup> 수상 전력사령부에서 발간한 문서에는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상함 전력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적들과 교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탑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무기체계와 전술이 잘 조합된다면 승리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고 합동작전 수행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수상함 전력의 분산이다. 수상함들의 분산은 적들로 하여금 아군의 탐지를 어렵게 하고 반대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방향이 다양해짐으로써 적들의 의사결정 및 전력 배치를 지연시키게 만든다. 세 번째는 지속 전투수행을 위한 군수의 보장이다. 작전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통신체계, 전술, 손상복구능력, 지휘통제체계 등 수상함 전력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이 보장되어야 한다.<sup>35)</sup>

30)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된 이후 해양통제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해군의 수상함전력은 주요 해상작전을 통해 해양통제를 확보하는 전력에서 지상타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해양통제를 위해 수행해야 했던 대함작전, 방공작전 및 대잠작전 등과 같은 수상함의 기본적인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A Plan to reinvigorate U.S. Navy Surface Warfar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pp.11-12.

31) 여기서 해양통제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양을 사용하고 적의 사용을 거부하는 개념이다.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2015).

32) 기존의 항공모함 운용 개념 변경은 ① 동적인 전력 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 ② 미 해군 함대전력의 전비태세 저하에서도 기인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 해군의 새로운 전력 운용 개념," 『KIMS Periscope』 (2018. 11. 8.) 참조.

33)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2015).

34) COMMANDER NAVAL SURFACE FORCES(2016), p.9.

위와 같이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항공모함의 목표해역 진입 및 상륙전력 투사 전에 화력이 강화된 수상전투단이 해역에 분산되어 표적이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필요시 상대측 무기체계의 사정거리 외곽에서 적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유도탄기지 등을 공격하여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 2.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추진 현황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수행을 위해 미국은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전력배치, 무기체계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먼저 전력배치이다. 미국은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항공모함 타격단(CSG)의 전력 중 상륙함 3척으로 구성되는 상륙준비그룹(ARG: Amphibious Ready Group)을 분리시켜서 수상전투전대(SAG: Surface Action Group)와 결합시켰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에 미국은 상륙강습함 와스프함(Wasp)을 포함한 세 척의 상륙함, 두 척의 구축함으로 편성된 화력 강화 원정강습단(Up-gunned Expeditionary Strike Group)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시켰으며 해당전력은 2018년 1월 14일 일본의 사세보 항에 입항했다.<sup>36)</sup> 이후에 3월 3일에 출항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초계 임무를 시작했으며 4월 21일에 오키나와 항에 입항했다. 화력 강화형 원정강습단은 미 7함대에 소속되어 괌에서부터 사세보, 요코스카까지 책임구역으로 하면서 상황 발생시 대응전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sup>37)</sup> 또한 해당 원정강습단은 초계 임무 수행 중에 미 해병대 제121 전투비행대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상륙강습함 와스프(LHD-1)에 수직으로 이착륙 했는데 F-35B가 처음으로 함상에 착함한 사례였다. 이는 F-35B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전력과 구축함 등의 수상함 전력을 통합한 화력 강화 원정강습단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화력을 통합하여 분산된 치명성 전략을 수행하고 생존성을 보장하여 지상으로의 화력 지원 뿐만 아니라 대잠, 대함, 대공임무도 수행 가능함을 의미한다.<sup>38)</sup> 미국 해군은 화력 강화 원정강습단이 11개인 항공모함 타격단

35) *ibid.*, p.10.

36) “F-35B 이착륙 미 강습상륙함, 오늘 사세보 기지 입항,” 『뉴시스』 (2018. 1.14).

37) “Wasp completes first patrol in US 7th Fleet,” *Naval today.com*, April 24, 2018.

38) “Historic First: F35B Lands on Wasp, Launching Era of Increased Navy-Marine Corps

(CSG)에 대한 수요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화력 강화 원정강습단이 함정과 항공기 보유 수량에서는 열세하나 작은 규모의 작전에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4개의 화력 강화 원정강습단을 보유하여 15개의 항공모함 타격단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sup>39)</sup>

다음은 무기체계 분야이다. 앞에서 언급한 화력 강화형 원정강습단은 뛰어난 센서와 네트워크 능력을 지닌 F-35B를 탑재하여 공격은 물론이고 초수평선 탐지능력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해군은 통합화력관제대공방어(NIFC-CA: Naval Integrated Fire Control Counter Air) 시스템에 F-35B 전투기의 센서와 SM-6 함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조기경보기 E-2D(Advanced Hawkeye)는 상륙함에서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미국 해군은 사막에 이지스 구축함을 모사한 SM-6 발사 시설인 데저트 함(LSS-1 DESERT SHIP)을 설치했다. 데저트 함은 F-35B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한 초수평선 표적 정보를 활용하여 SM-6를 발사하여 표적을 명중시키는데 성공했다.<sup>40)</sup> SM-6 미사일은 대공, 대함공격 능력과 함께 해상 기반 종말 탄도미사일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 해군은 SM-6의 모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지스 베이스라인 9.C1을 갖춘 함정을 지속 건조할 예정이다.<sup>41)</sup> 또한 연안전투함(LCS)은 최초로 연안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화력 강화를 위해 최근에 취역한 오마하함(Omaha)에는 함대공 미사일(RIM-116)이 장착되었으며 코로나도함(Coronado)을 통해서 최대 사거리 315km인 함대함 미사일(AGM-84)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sup>42)</sup> 나아가 미국 해군은 2017년 10월 22일 상륙함 앵커리지(Anchorage)함 비행갑판에서 고기동성 포병용 로켓(HIMARS :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HIMARS는 5톤 차량을 플랫폼으로 하여 15~70km 사거리의 GMLRS(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와 300km 사거리의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함정

---

Sea-based Capabilities in Indo-Pacific,” *United State Navy*, March 5, 2018.

39) “PACFLT’s Swift: Amphib USS Wasp Will Deploy With Surface Action Group in 2017,” *USNINEWS*, November 23, 2016.

40) “Navy Conducts First Live Fire NIFC-CA Test with F-35,” *CHIPS*, September 14, 2016.

41) “U.S. Navy uses Raytheon’s SM-6 to Destroy Ballistic Missile Target for the First Time,” *NAVY RECOGNITION*, August 3, 2015.

42) “미, 최신에 연안전투함 태평양함대에 추가 배치,” 『연합뉴스』 (2018.2.6.)

발사시험을 통해 미국 해군은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전략’ 구체화를 위한 상륙함에서의 공세적 무기의 운용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이는 상륙함을 항모 호위의 방어적인 임무에서 벗어나, 공세적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해양 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sup>43)</sup>

### 3.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추진 동인(動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동류국가(like-minded states), 특히 호주, 인도, 일본과 미국의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즉 쿼드(Quad) 협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칙 기반 질서, 보편적 가치,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해양 및 글로벌 공유재(global commons)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을 강조한다.<sup>44)</sup> 이와 더불어 미국은 2017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미국의 국익 및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5)</sup> 이를 종합해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이용한 군사력 투사보다는 해양통제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양통제로의 복귀는 미국이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군사력 투사가 어려워졌으며, 도전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해양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교통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다.<sup>46)</sup> 이는 도전국 연안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기존의 해양전략에서 대양에서의 결전을 추구하는 해양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높여가고 있다. 인도-태평양 연안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음을 앞장에서 확인하였다.

43) “HIMARS test advances USN surface-ship lethality potential,” *Jane’s 360*, October 24, 2017.

44)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국가전략』 제24권 제3호(2018), p.104.

45) THE WHITE HOUSE, “N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검색일: 2018.11.20).

46)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 (2015).

즉,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공통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등장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방법(Ways)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는 해당전략들의 발전에 따른 함의를 살펴 보겠다.

## Ⅳ.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 발전의 함의

### 1. 미국-인도, 베트남 해군간 협력 강화

분산된 치명성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해군협력은 중요하지만 그중에 인도와 베트남과의 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도는 중국과 해당지역에서 패권을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인도간의 해군협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인도는 1992년 시작한 말라바(Malabar)훈련에 2015년 일본 해상자위대 참가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3국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해군이 말라바 훈련을 벵갈만에서 실시했다. 지난 훈련은 항공모함 작전, 대공·대함·대잠전, 수색 및 구조, 인도와 미국 해군 특수부대의 공동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함, 인도의 유일한 항공모함 비크라마디트야함, 일본 최대 전함 이즈모함을 비롯해 함정 16척, 잠수함 2척, 항공기 95대가 참가했다. 특히 일본의 이즈모함은 7월 6일에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3일간 훈련을 비롯하여 3개월 동안 남중국해의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를 경유하는 항해를 마친 후 말라바 훈련에 참가했다. 2017년 말라바 훈련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훈련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sup>47)</sup> 또한 해당 훈련은 해마다 태평

47) “말라바 훈련 참가국, 상호운용성과 비국가조직 억제력 증명,”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7. 9. 7).



양과 인도양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2018년에는 괌에서 진행되었다.<sup>48)</sup> 또한 지난 9월 6일 미국과 인도는 외무-국방장관과의 2+2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상호 운용과 보안에 관한 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했다. COMCASA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국만 맺는 협정으로 COMCASA는 군사와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무형자산들을 공유하는 약속으로 하나는 정보공유, 다른 하나는 기술공유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주변 지역, 특히 중국군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인도에서 받아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미군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됐다.<sup>49)</sup> 이러한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양국 해군간 무기체계 운용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분산된 치명성 전략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베트남과의 해군협력이다. 2015년에는 미국의 카터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 대화 직후 베트남의 하이퐁을 방문하여 양국관계의 현대화에 노력한다는 공동구상에 합의하였으며 카터는 베트남 해군/해안경비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18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이를 경비함 구입에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sup>50)</sup> 2016년에는 베트남에 대해 50년 가까이 적용됐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 해제했는데 이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종전 직후인 1975년 무기 금수조치를 41년 만에 해제한 것이다.<sup>51)</sup> 최근에는 지난 3월 5일에 베트남 전쟁 후 처음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베트남 다낭에 기항했으며<sup>52)</sup> 지난 6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에 베트남 해군 관료 8명이 파견되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적군으로 맞붙었던 미국 해군 주도의 훈련에 관료를 파견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베트남이 2012년과 2016년 참관인을 보낸 적은 있지만 국방부 관료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sup>53)</sup> 이러한 모습은 미국과 베트남간에 군사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판단된다.

48) “미·일·인도 3국 연합 해상훈련 ‘말라바르’ 7일 괌에서 시작,” 『매일경제』 (2018. 6. 6).

49) “미국-인도 COMCASA 체결, 군사동맹수준 강화,” 『뉴스타운』 (2018. 9. 8).

5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66.

51) “美, 베트남 41년만 관계 정상화…중견제 의도,” 『TV 조선』 (2016. 5.24).

52) “美항모, 종전 이후 첫 베트남 기항,” 『파이낸셜뉴스』 (2018. 3. 5).

53) “베트남 사상최초 림팩에 해군 관료 파견…친미행보 속도 불나,” 『아주경제』 (2018. 6.27).

## 2. 미국과 역내 국가 해군과의 통합 전투력 극대화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미국 해군 전력과 동맹국들의 해군 전력들을 화력 강화 원정강습단에 함께 편성하여 분산 배치·운영하는 개념이다.<sup>54)</sup> 해당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 해군간 통합된 전투력이 극대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각국의 이지스함과 F-35B의 통합운용을 살펴보겠다. 현재 미국 해군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에 이지스(AEGIS)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3척(Hobart-class destroyers), 일본 6척(Kongo and Atago DDG), 한국 3척(세종대왕급 DDG)이 있다. 해당국가들의 이지스함과 미국의 F-35B를 통합 운용하게 될 경우 호주는 100기, 일본은 42기, 한국은 40기의 F-35B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통제 가능하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하여 그들의 능력을 해당지역에서 극대화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국가간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이러한 통합된 전투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동·남중국해 해역, 말라카 해협 등)에서 해양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지역은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해군전력을 더 넓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역내국가와의 통합된 전투력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함정 손상통제능력 향상 추진

분산된 치명성 전략은 오히려 수상함의 취약성을 드러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더 많은 수상함들이 분산 배치되어 해상 결전을 벌이게 되면 그만큼 수상함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증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상함이 전투 중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하는 부분도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대잠전 전력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남은 전력으로 적의 잠수함과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최근의 손상통제 사례로 미국의 사무엘 B. 로버츠함

54) "Distributed Lethality and the Importance of Ship Repair," *THE STRATEGY BRIDGE*, February 14, 2017.

55) "Opinion: Expanding the Distributed Lethality Web," *USNI NEWS*, June 10, 2016.

(Samuel B. Roberts/FFG-58)의 기뢰 피격을 들 수 있다. 1988년에 사무엘 B. 로버츠함은 기뢰에 피격된 후에 이동선박을 통해서 뉴포트(Newport)로 옮겨졌고 이동기간만 45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수리기간은 7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화력 강화형 원정타격단의 수상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함정의 이동 및 수리 소요기간을 고려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손상통제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손상통제 시설로서 괌, 산디에고, 에버렛, 진주만, 일본의 요코스카를 사용하고 있고 단순한 수리의 경우는 베트남의 캄란항(Cam Ranh Military Port)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요코스카를 제외하고 미국 해군 함정이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리할 수 있는 손상통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없다. 따라서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추진은 수상함이 전투 중 입을 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을 의미하고 현재 손상통제 복구 능력을 고려시에는 수리 소요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은 미국 해군 함정이 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손상통제 시설 확보 및 지원함정 보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sup>56)</sup>

#### 4. 인도양 국가-태평양 국가간 경제협력 추진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양 및 태평양의 해양안보에 대한 역내국가간 공통된 인식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간 경제분야의 통합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양 국가와 태평양 국가로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태평양 국가들은 APEC 국가들과의 무역 비율이 전체 무역 비율 중 65-70%이나 인도양 국가들의 경우 45-5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인도양 국가들은 주변의 이웃국가인 동남아시아와 걸프만 인근 국가들과 교역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태평양 국가들과 인도양 국가들간에 경제 교류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투자 현황도

56) "Distributed Lethality and the Importance of Ship Repair," *THE STRATEGY BRIDGE* (2017).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인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3개국이 태평양 국가에 투자하는 금액은 1.4조 달러이나 인도양 국가에 투자하는 금액은 840억 달러이다. 즉, 태평양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상당한 수준이나 태평양 국가와 인도양 국가간의 통합된 경제협력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태평양 국가와 인도양 국가간 통합된 경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도양-태평양 국가간 APEC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협력체 창설, 국가간 경제 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이동체계 (항만, 도로, 철로, 통신체계 등) 설치<sup>57)</sup> 등을 들 수 있겠다.<sup>58)</sup>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인도양 국가와 태평양 국가간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최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해군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에게 크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최근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고 해당전략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향후에 해당전략들은 연계되면서 미국과 인도-베트남 해군과의 협력 강화, 미국과 역내 국가 해군간 통합 전투력 극대화, 함정 손상통제 복구 능력 향상 추진, 인도양 국가-태평양 국가간 경제협력 추진이 예상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해군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국해군은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역내균형자로 성

57) “폼페이오 “인도태평양에 1천200억 원 투자”...中 ‘일대일로’ 맞불,” 『연합뉴스』 (2018. 7.31). 지난 7월 30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술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억1천 300만 달러(약 1천264억 원)를 투입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액 가운데 2천 500만 달러는 미국의 기술 수출 확대에 쓰이며, 약 5천만 달러는 에너지 자원 생산 및 보관, 사회기반시설 개발 신장을 위한 새로운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58) Jeffrey D. Wilson, “INDO-PACIFIC INSIGHT SERIES Investing in the economic architecture of theIndo-Pacific”, *Research Fellow, Perth USAsia Centre*, Vol.8(August 2017), pp.4-9.

장할 인도 해군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sup>59)</sup> 인도는 연안 방어 위주의 해군에서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해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도 해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그 중 50% 정도를 미래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sup>60)</sup> 인도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형 구축함, 호위함 및 디젤/핵추진 잠수함 등의 도입을 통해 해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sup>61)</sup> 인도해군의 성장에 따라 이들과 태평양 국가들의 해군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해군과의 기동훈련, 인적교류, 방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미 해군간 연합훈련이다.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한미연합훈련 집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62)</sup> 따라서 한미 해군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식별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산된 치명성 전략으로 인해서 이들과의 작전, 훈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 영토분쟁에 대비한 역내 국가간 협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해군의 성장과 이로 인한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토분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모두 포함시켜 무력충돌 예방, 해양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 체제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이외에도 해군 회의, 해군 함정 상호 방문,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9) 인도해군은 지난 20년간 함정 총 톤수 기준 30%의 성장률을 [2011년(217,426톤), 1991년(167,657톤)] 보였고 해군에 투자한 예산 역시 1,000%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4.8billion), 1991년(\$468million)] 인도해군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Harsh V. Pant, "The American "Pivot" and the Indian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8, No.1(Winter 2015), Rahul Roy-Chaudhury, *India's Maritime Security*(New Delhi: Knowledge World, 2000).

60) Jim Thomas, *Gateway to the Indo-Pacific: Australian Defense Strategy and the Future of the Australia-U.S. Alliance*(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2013).

61) Harsh Pant and Yogesh Joshi "The American "Pivot" and the Indian Navy: It's Hedging All the Wa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8, No.1 (Winter 2015).

62) 9월 19일 남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남북한은 향후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김찬완, “모디정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24권 제2호(2018)
- 안성규,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Issue Brief』 (2015.11)
-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국가전략』 제24권 제3호(2018)
- 이대우,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정책』 (2017.12)
- 이재현,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Issue Brief』 (2015.10), p.3.
- 정호섭, “미 해군의 새로운 전력운용 개념,” 『KIMS Periscope』 (2018. 11. 8.) 참조.
- 최정현, “미국 해군의 공세적 해양전략과 전투함대—마한으로의 회귀?,” 『KIMS PERISCOPE』 제85호 (2017. 6.11).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AND COOPERATION,” *National Security College* (July 2016).
-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fence White Paper,” [http://www.defence.gov.au/whitepaper/2013/docs/WP\\_2013\\_web.pdf](http://www.defence.gov.au/whitepaper/2013/docs/WP_2013_web.pdf).
-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A Plan to reinvigorate U.S. Navy Surface Warfar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 Chacko, P, “The rise of the Indo-Pacific: understanding ideational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s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68, No.4 (2014).
- COMMANDER NAVAL SURFACE FORCES, “Surface Force Strategy—Return to Sea Control,”
- C. Raja Mohan, *Samudra Manthan: Sino-Indian Rivalry in the Indo-Pacific*,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2)
- David Scott, “Australia’s embrace of the ‘Indo-Pacific’: new term, new region, new strateg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13, No.4 (2013).
- Harsh Pant and Yogesh Joshi “The American “Pivot” and the Indian Navy: It’s Hedging All the Wa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8, No.1 (Winter 2015).
- Harsh V. Pant, “The American “Pivot” and the Indian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8, No.1(Winter 2015)

Hillary Clint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 Pacific, 28 October 2010,”

Jeffrey D. Wilson, “INDO–PACIFIC INSIGHT SERIES Investing in the economic architecture of the Indo–Pacific”, *Research Fellow, Perth US Asia Centre*, Vol.8 (August 2017).

Jim Thomas, Gateway to the Indo–Pacific: Australian Defense Strategy and the Future of the Australia–U.S. *Allianc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2013).

Midford, Paul. “Japan’s Approach to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Asian Survey*, Vol.55 (2015).

RED ALERT: The Growing threat to U.S. Aircraft Carrier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bruary 22, 2016.

Rahul Roy–Chaudhury, *India’s Maritime Security* (New Delhi: Knowledge World, 2000).

THE WHITE HOUSE, “N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shi Yoshihara, “The US Navy’s Indo–Pacific challenge,” *Journal of the Indian Ocean Region*, Vol.9, No.1 (2013).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2016).

U.S. Department of Defense, “Remarks by Secretary Mattis at Plenary Session of the 2018 Shangri–La Dialogu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7.

“Distributed Lethality and the Importance of Ship Repair,” *THE STRATEGY BRIDGE*, February 14, 2017.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 January, 2015.

“HIMARS test advances USN surface–ship lethality potential,” *Jane’s 360*, October 24, 2017.

“Historic First: F35B Lands on Wasp, Launching Era of Increased Navy–Marine Corps Sea–based Capabilities in Indo–Pacific,” *United state Navy*, March 5, 2018.

“If it floats, it fights: Navy seeks distributed lethality,” *Breaking Defense*, January 14, 2015.

“More Prominence for India and the Indo–Pacific in the U.S. National Security

- Strategy,” *Council on foreign realtions*, December 19, 2017.
- “Navy Conducts First Live Fire NIFC-CA Test with F-35,” *CHIPS*, September 14, 2016.
- “Opinion: Expanding the Distributed Lethality Web,” *USNI NEWS*, June 10, 2016.
- “PACFLT’s Swift: Amphib USS Wasp Will Deploy With Surface Action Group in 2017,” *USNINEWS*, November 23, 2016.
- “U.S. Navy uses Raytheon’s SM-6 to Destroy Ballistic Missile Target for the First Time,” *NAVY RECOGNITION*, August 3, 2015.
- U.S. Indo-Pacific Command 홈페이지
- “Wasp completes first patrol in US 7th Fleet,” *Naval today.com*, April 24, 2018.
- “美, 베트남 41년만 관계 정상화…中견제 의도,” 『TV 조선』 (2016. 5.24).
- “美항모, 종전 이후 첫 베트남 기항,” 『파이낸셜뉴스』 (2018. 3. 5).
- “베트남 사상최초 림팩에 해군 관료 파견…친미행보 속도 붙나,” 『아주경제』 (2018. 6.27).
- “말라바 훈련 참가국, 상호운용성과 비국가조직 억제력 증명,”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7. 9. 7).
- “미·일·인도 3국 연합 해상훈련 '말라바르' 7일 꺾에서 시작,” 『매일경제』 (2018. 6. 6).
- “F-35B 이착륙 미 강습상륙함, 오늘 기사세보 기지 입항,” 『뉴시스』 (2018. 1.14).
- “미국-인도 COMCASA 체결, 군사동맹수준 강화,” 『뉴스타운』 (2018. 9. 8).
- “미, 최신예 연안전투함 태평양함대에 추가 배치,” 『연합뉴스』 (2018.2.6.)
- “일본-인도 정상회담…모디 총리,日집단지위권지지,” 『SBS NEWS』 (2014. 9. 1.)
- “美, 태평양사령부 명칭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 『연합뉴스』 (2018. 5.31.)
- “美 ‘인도·태평양 구상’ 공식화… 아직 갈 길은 멀다,” 『국방일보』 (2017.11.19).



Abstract

## A Study on U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Distributed Lethality

Kim, Tae-sung\*

The U.S. has recently developed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Distributed Lethality strategy based on a common perception that they are responding to China's threats.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he following. Strengthen cooperation of the U.S.-India-Vietnam navy, Maximizing the combined combat power between the U.S. and regional navies, Improving its ability to restore damage contro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acific and Indian countries.

The meanings given to the Korean navy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should pursue cooperation with the Indian Navy, which will grow into a regional balance on China's growth. The growth of the Indian navy is expected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other Pacific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india navy in various fields.

Secondly, it is a joint drill between the U.S. Navy and the Korean Navy. Recently, the Korea-U.S. joint drill has not been conducted and many changes are expected to be mad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drill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possible changes in the nav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navy and the U.S. navy Also, due to distributed lethality strategy, preparations for operations and training with U.S.navy will be necessary.

Lastly, it should contribute to cooper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in

---

\* R.O.K. Navy Officer(Leutenant Cmmand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ster's degree in Security Policy, U.S. Naval War College.

preparation for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he growth of the Chinese navy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has rai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t sea.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s that can continue to promote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Key words : Indo-Pacific strategy, Distributed Lethality**

논문접수 : 2018년 11월 30일 | 논문심사 : 2018년 12월 20일 | 게재확정 : 2018년 12월 26일